사진기자의 딴 짓

"아이쿠~ 깜짝이야"

푸른광주 21협의회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마련한 '제44회 푸른 광주 재활장터'에서 자전거 시범을 지켜보면서 옆자리 친구들과 장난을 치던 아이가 소리를 지르며 깜짝 놀라더군요. 얼굴 바로 앞에서 꼼짝 않고 서 있는 자전거 바퀴가 위협적이었을까요, 신기했을까요.

자전거 탄 아저씨도 그 소리에 놀랐을까요? 얼어 붙은 듯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바퀴로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폼이 멋있더군요.

얼마나 타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흔들리지도 않고. 아이들도 궁금해합니다.

짧은 거리도 자전거 타기보다 아빠 차에 타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해진 아이들입니다. 건강에도 좋고, 친환경적인 자전거인데 말이죠. 학원을 돌아다니면서도 엄마가 태워주는 자동차가 더 편한 아이들이죠. 하기야 편하게 자전거 탈 만한 공간도 흔치 않은 게 도시의 현실이죠.

자전거가 신기하지 않고, 또 맘대로 탈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 그게 푸른광주의 모습 아닐까요.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뉴스퀴즈 67·68회 김현숙씨 1등

광주일보가 실시한 67·68회 뉴스 퀴즈 추첨 결과, 김현숙씨가 1등에 뽑혔습니다.

김씨는 18일 광주일보 편집국에서 열린 상품 추첨식에서 진공청소기의 주인으로 당첨됐습니다.

67·68회 뉴스 퀴즈에는 엽서와 편지로 343명이 응모했으며,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답자 2명을 뽑아 순서에 따라 등수를 정했습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 홍보 사원 박선영씨가 추첨을 했으며, 공정한 추첨을 위해 광주동부경찰서 임영재 경사와 황경수 경사가 입회했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1등 ▲김현숙·영광군 영광읍

2등 ▲김선숙·광주시 북구 우산동

뉴스퀴즈

69.미국프로야구 뉴욕 메츠에서 방출된 '한국인 메이저리거 1호'인 이 선수가 휴스턴 애스트로스에서 '제2의 야구 인생'을 열어가게 됐습니다.

이 선수는 최근 휴스턴행을 전격 결정, 마이너리그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4년 LA 다저스에서 처음 빅리거로 데뷔한 뒤 2002년 텍사스 레인저스, 2005년 샌디에이고, 올 해초 뉴욕 메츠를 거쳐 다섯 번째 팀에 몸 담게 된 것입니다.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① 박찬호 ② 박지성 ③ 이동국 ④ 이영표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오늘의 유머

■남자 파는 가게

자신이 원하는 이상형 남자를 선택하여 살수 있는 가게가 문을 열었다.

이 가게는 5층으로 되어 있으며 일단, 어떤 층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더 이상은 올라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자신의 이상형인 남자를 선택해야 한다.

두 여자가 꿈에 그리던 이상형인 남자를 사려고 1층에 당도하니 안내문이 하나 걸려 있었다.

'이곳에는 직업이 있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음, 더 올라가 보아야지." 하며 2층에 가니,

'돈을 잘 벌고, 아이들을 좋아하며 잘 생긴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흠, 아주 좋아. 그래도 위층에 어떤 남자들이 있는지 확인해봐야겠지?"

3층에는 '돈을 잘 벌고, 아이들을 좋아하며, 아주 잘생겼고 집안일을 도와주는 남자.'

"우와! 하지만 위층에는 더 괜찮을 것 같은데."하며 4층을 올랐다.

4층에는 '이곳에는 돈을 잘 벌며, 아이들을 좋아하고, 아주 잘생겼고, 집안일을 잘 도와줄 뿐 아니라 아주 로맨틱한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4층이 이 정도라면 위층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남자들은? 상상조차 안돼! "

두 여자는 두 주먹에 힘을 줬다.

두 여자는 서둘러서 5층으로 올라갔다.

들어가는 문의 안내문은 다음과 같았다.

5층은 비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출구는 왼편에 있으니 계단을 따라 내려가세요

■등산 좀 자주 갑시다

흥부 부부가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그만 실수로 부인이 연못에 빠졌다.

흥부가 울고 있는데 산신령이 젊고 예쁜 여인을 데리고 나오며, "이 사람이 네 마누라냐?"

흥부 : 아니올시다

산신령 여인을 놓고 다시 연못속으로 들어가더니, 이번엔 탤런트를 닮은 젊고 이쁜여인을 데리고 나와, "그럼 이 사람이 네 마누라냐?"

흥부 : 아니옵니다.

산신령은 다시 물속으로 들어 가더니, 이번엔 정말 조그맣고 못생긴 흥부 마누라를 데리고 나왔다.

흥부 : 감사합니다. 산신령님~! 바로 이 사람이 제 마누라입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마누라를 데리고 갈려고 하는데, 산신령 하는 말

"여봐라! 흥부야, 이 두여인도 모두 데리고 가서 함께 살도록 하여라.

흥부 : "아니옵니다. 저는 마누라 하나면 족합니다. "하고 마누라와 집으로 내려왔다

집에 와서 흥부네가 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니,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놀부.

갑자기 마누라 보고 산에 등산가자고 꼬셔서 연못가에 이르러 "여보! 이리와봐, 물 참 좋다."

놀부 마누라가 연못가에 다다르자, 그만 마누라를 연못에 밀어 넣고는 앉아서 산신령이 이쁜 여자를 데리고 나올때만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도 안나와, 한참 후 왠 건장한 사내가, 물속에서 나오는데.

바지를 입고 허리띠를 매면서 하는 말, "어허! 오랫만에 회포를 풀었네, 기분 좋다."

뒤이어 놀부 마누라 물속에서 나와, 치마끈을 매면서 하는 말.

"여보! 등산 좀 자주 갑시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19일(음 5월 5일 甲申)

子 36년생 자신 있게 행동하면 큰 득이 다가온다. 48년생 급하게 서두르면 불리하니 여유 있게 생활하라. 60년생 결정을 내렸어도 다시 한번 점검하라. 72년생 家率이 늘어나지만 먹을 것이 없구나. 84년생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에 빠진다. 행운의 숫자 : 07, 29

丑 37년생 뜬 구름 잡지 말고 현실로 돌아오라. 49년생 새벽부터 서둘러라 급한 일이 생긴다. 61년생 하루 종일 바쁘지만 소득은 기대마라. 73년생 부부간에 오해가 생길 일이 생길 수도 있으나 나쁜 일은 없다. 85년생 자신을 모함 고자질하는 수하인이 사람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15, 40

寅 38년생 재물을 나누라 또다시 모아진다. 50년생 주변인에게 모진 일을 시킬 수도 있으니 상식적으로 행하라. 62년생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옆 사람을 조심하라. 74년생 한 시가 바쁘니 時間을 아껴 써라. 행운의 숫자 : 09, 36

卯 39년생 전쟁은 치열하나 군량미가 없는 형국이니 안타까울 뿐이다. 51년생 세상이 급변해도 지켜야 할 것은 있다. 63년생 죽마고우의 친구를 잊지 말고 옛 정을 찾아라. 75년생 생각지도 않은 큰 소비가 생긴다. 행운의 숫자 : 13, 25

辰 40년생 옛것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찾아라. 52년생 서두르면 실패하니 前後를 살펴가라. 64년생 독불장군 없으니 상대방도 존중하면 시비는 없으리라. 76년생 대장과 윈다리에 이상이 있을 수다. 행운의 숫자 : 06, 26

巳 41년생 錦衣夜行 격이니 빛이 나지 않는다. 53년생 어려움은 닥쳐도 지혜는 샘솟는다. 65년생 능력을 발휘하나 공로가 없어 가슴이 답답하다. 77년생 자신의 능력을 모함하는 자가 나타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19, 37

午 42년생 새로운 인생의 준비를 해보라. 54년생 기다리던 사람에게서 일찍이 소식 온다. 66년생 꿩 먹고 알 먹는 좋은 일이 생기나 결과는 반반이다. 78년생 새로운 일이 생기나 진행을 늦추라. 행운의 숫자 : 04, 27

未 43년생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처신해야 좋으리라. 55년생 산 넘어 산이니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 67년생 자신의 주가를 올릴 수 있는 활동에 집중하라. 79년생 시비에 휘말린다. 행운의 숫자 : 04,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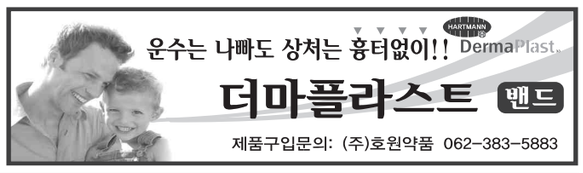
申 44년생 외부는 시끄러워도 내부는 편안하다. 56년생 부부간에 서로 이해와 배려에 노력해야 한다. 68년생 사소한 언쟁이 있으나 애정은 새롭다. 80년생 家率이 늘어나지만 먹을 것이 없구나. 행운의 숫자 : 05,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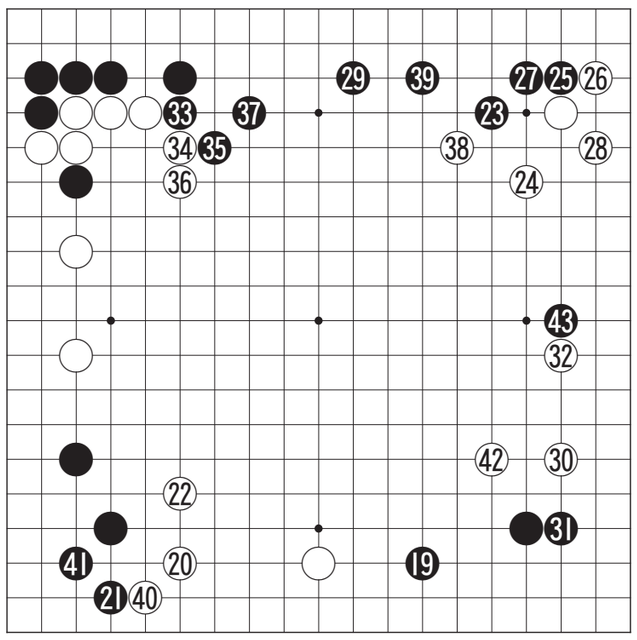
酉 45년생 늘 생각하고 있던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57년생 모든 지혜를 총 동원하면 해결된다. 69년생 상황은 어려워지지만 마음은 편하니 조용히 보내라. 81년생 외출을 삼가 하라. 행운의 숫자 : 22, 27

戌 46년생 건강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것이 좋으리라. 58년생 직장과 자식에게서 좋은 소식이 온다. 70년생 병은 작을 때 잡아라. 82년생 가능한 한 변화를 주지 않으면 해는 없으리라. 행운의 숫자 : 02, 35

亥 47년생 지나간 일이지만 다시 새겨보라. 59년생 大禍는 없으니 급할수록 돌아가라. 71년생 구설수에 오르니 행동을 바르게 해야 한다. 83년생 생각지도 않은 돈이 생기나 쓸 곳은 바로 생긴다. 행운의 숫자 : 10, 26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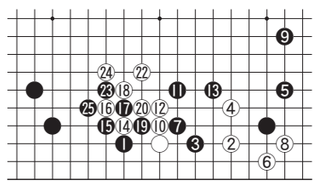
제16회 광일배 직장대항 단체 2회전

예측불허의 침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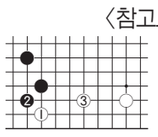
2보(19~43)

白 유병수 5단 (포스코)

黑 전지용 5단 (조선대)



〈참고도 1〉



〈참고도 2〉

흑 19가 이 판의 골격을 짜는 선택의 기로였다. 이 수로 '참고도1'의 흑 1 쪽에서 다가가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백 2로 벌리고 3으로 뛰어들어 복잡한 수순을 거쳐 25까지가 요즘 많이 두어지는 정석이다.

백 20은 단순한 수로 약간은 책략이 부족한 느낌이 있다. 이 수로는 '참고도2'의 백 1로 미끄러지는 수가 좋은 수로, 흑이 어떻게 받더라도 하변 백 한점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흑 23 이하 29까지의 정석을 거쳐 백은 30, 32로 우변을 건설하고 흑도 37까지 상변을 키워 포석이 일단락되었다. 여기까지는 장기전의 양상이다. 그런데 다음의 흑 43이 폭풍을 몰고온 예측불허의 격렬한 침입수였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KYOBO 교보생명

바둑소식

김승준 9단, 목진석 9단 제압

김승준 9단이 18일 전주전통문화센터에서 열린 제35기 강원랜드배 명인전 본선리그에서 목진석 9단을 281수만에 흑 1집 반으로 꺾었다.

김 9단은 이 승리로 목진석 9단, 박영훈 9단과 함께 리그 전적 3승2패로 2위 그룹을 형성했다. 김 9단은 이날 성적을 포함해 올해 17승 12패, 목 9단은 46승 12패(다승 1위)를 기록했다. 목 9단은 이창호 9단, 이세돌 9단, 조한승 9단 등 강호들과 대국에서 승리했지만 김지석 4단, 김승준 9단에게 패하면서 주춤거리고 있다. 이 대회의 총상금 규모는 7억원이다. 우승상금은 1억원(준우승3천만원).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929>

Where is this play being performed?

이 연극은 어디서 상연하고 있습니까?

A:**Where is this play being performed?**
B:At the theater right by the library. But you should get a reservation ticket.
A:Is it popular?
B:Yes, the actor playing the leading role is excellent.

A:이 연극은 어디서 상연하고 있습니까?
B:도서관 왼쪽 옆 극장에서요. 하지만 미리 예매를 하셔야 해요.
A:인기가 있나요?
B:그럼요, 그 주연 배우 연기 매우 멋집니다.

perform : 연기하다
leading role : 주연배우
지금 무엇을 상연하고 있나요?
= What plays are being staged now?
입장료가 얼마죠?
= How much is the admission fee?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요우 니혼고 <929>

人(ひと)って見(み)かけによらないですね

사람이란 겉보기와는 다르네

A:小林(こばやし)さんて、編(あ)み物(もの)がすごく上手(じょうず)なんですって。びっくりしちゃった。
B:らしいね。課長(かちょう)はマラソンやってるらしいよ。
A:へえ、あの課長(かちょう)が。**人(ひと)って見(み)かけによらないですね。**

A:코바야시씨 말이야. 뜨개질을 굉장히 잘 한다고 해. 깜짝 놀랐어.
B:그렇다나봐, 과장님은 마라톤을 하고 있는 것 같아.
A:뭐?그 과장님이? **사람이란 겉보기와는 다르네.**

見(み)かけ : 겉보기
よる : ~에 의거하다, 따르다, 기인하다의 부정형よらない
編(あ)み物(もの) : 편물, 뜨개질
上手(じょうず) : 능숙하다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쭝구워 <120>

我想送给我外婆

저는 외할머니께 보내드릴 거에요

A:您觉得这件大衣怎么样?
Nín juéde zhèjiàn dàyī zěnmeyàng?
닌 쥐에더 쩌 지엔 따이 전머양?
B:我建议你不要买，这件衣服不适合年轻人。
Wǒ jiànyì nǐ búyào mǎi, zhè jiàn yīfu bùhéshì niánqīngrén。
워 찌엔이 니 부 야오 마이, 쩌 지엔 이푸 뿌허스 니엔칭런.
A:**我想送给我外婆。**
Wǒ xiǎng sòng gěi wǒ wàipó。
워 시앙 쑹 게이 워 와이포.
B:哦，是一件礼物。
ā, shì yíjiàn lǐwù。
아, 스 이지엔 리우.

A:당신생각에 이 코트 어때요?
B:내 생각에는 사지 않는게 좋겠어요,
이 옷은 젊은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A:**저는 외할머니께 보내 드릴 거에요.**
B:아, 선물.

建议 [jiànyì] 건의하다
年轻人 [niánqīngrén] 젊은이
件 [jiàn] 양사
(일·사건·개체의 사물 등을 세는 데 사용함)

〈호남대학교 공자아카데미〉
☎ 3838-868

한자 이야기 <546>

自家撞着 (자가당착)

스스로 자, 집 가, 칠 당, 붙을 착

자가당착(自家撞着)의 자가(自家)는 자기(自己)라는 뜻이고, 당착(撞着)은 부딪히다, 즉 앞뒤가 서로 맞지 아니하여 충돌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가당착은 스스로 한 말이나 행동이 서로 어긋나 이치에 맞지 않고 모순되는 경우를 나타내고, 흔히 '자가당착에 빠지다'라고 한다.

자가당착은 다음 같은 선시에서 유래되었다.('禪林類聚'·'看經門')

수미산은 높고 높아 봉우리도 보이지 않고 須彌山高不見嶺
바닷물은 깊고 깊어 바닥을 알 수 없네. 大海水深不見底
흙을 뒤집고 먼지를 털어도 찾지 못하다가 簸土揚塵無處尋
머리 돌려 부딪치니 자기 자신이라네. 回頭撞着自家底

이 시에서 찾는 것은 진리(眞理)이다. 이런 저런 방법을 동원하여 찾았으나 찾지 못하다가, 결국 자기 자신과 부딪힌다는 내용이다. 결국 진리는 자신의 안에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외부에서만 찾으려는 실수를 경계하는 시이다. 외부에서 억지로 찾으려다 못 찾으면 끝내는 사실을 왜곡(歪曲)하는 실수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한예원(韓睿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6505